최고 수익 농산물 시설오이

10a당 1,356만원…시설호박은 854만원

전남농기원 분석

■2006년도 전남 농산물 순소득 (단위:만원)

시설오이(촉성) 재배가 가장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56개 작목 744 농가를 대상으로 2006년산 전남지역 주요 농산물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0a(300평)당 연간 순소득(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수익)은 시설오이가 1천356만8천661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 호박(854만7천972원), 시설 고추(819만8천625원), 시설 장미(815만858원), 파프리카(779만5천854원)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작목이 고소득을 올렸다.

시설 오이가 가장 수익이 많은 것은 국제 유가(油價) 상승으로 인해 주산지인 충남 지역 오이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수익 작목일수록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기름값 등 경영비 비중이 높았다. 파프리카는 전체 수입의 75.5%를 경영비가 차지했으며 시설장미 65.8%, 시설호박 53.3%,시설고추 48.9%, 시설오이 47.8% 에 달했다.

노지 채소류는 시금치(131만9천256원), 봄무(119만5천665원), 쪽파(113만4천421원), 가을배추(109만2천958원), 대파(101만5천129원)순으로 나타났다.

과수류 가운데는 참다래가 356만1천705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349만8천291원), 노지 포도(339만 7천147원), 무화과(335만 2천272원), 사과(331만9천444원) 등의 순이다. 반면 식량작물인 쌀은 47만9천119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5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복숭아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노지수박(46.5%), 유자(42.3%), 노지 봄 배추(40.1%), 무화과(32.2%), 양배추(26.2%) 순이었다.

서귀수 전남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난방비(유류·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영비를 절감하고 대형 할인점 계약재배나 인터넷 직거래 등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순천 1년에 석달은 '안개'

10년간 897번 발생…광주·전남 지역서 최다

도시화된 광주 감소세…무안공항은 年 17일

광주·전남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은 소설 '무진(霧津)기행'의 배경인 순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은 1995~2005년 10년 동안 897번이나 안개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목포 233일 ▲여수 206일 ▲완도 143일 ▲광주 130일 등 순이다.

광주지방기상청 유근기 예보관·원효성 예보사, 조선대학교 류찬수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호남지방의 안개 특성 및 예측성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남지역의 안개 일수는 총 2천194일로 순천이 전체의 40.1%인 897일을 차지했다. 연평균 90일 가량 안개가 낀 셈이다.

순천의 경우 가을철 안개발생 일수가 429일로 봄철(147일)의 세 배에 달했고, 일교차가 클 때 발생하는 '복사무'가 전체의 78%(694일)를 차지했다. 이는 순천만에서의 수증기 공급이 풍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철에 '복사무'(輻射霧)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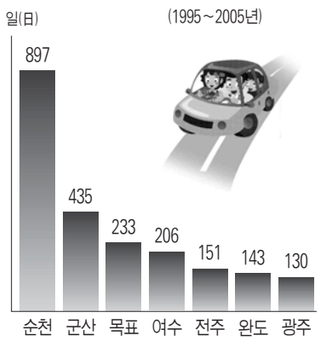
광주의 안개 빈도가 낮은 이유는 도시화에 따라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아스팔트로 덮이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수증기원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복사무'의 영향을 주로 받는 봄과 가을철 안개 발생 비율이 각각 43%나 됐다.

안개 발생시 풍향은 남서풍이 절반을 넘는 57%로 나타났다. 이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무(海霧)가 남서풍을 타고 이동해 오면서 지표면에서 냉각되는 '이류무'(移流霧)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9일 개장하는 무안공항의 연간 안개일수는 17일로 인천국제공항(47일)이나 청주국제공항(78일)보다 적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역별 안개발생 일수



▲복사무(輻射霧)=복사냉각(輻射冷却·열이 방출되면서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는 현상)효과로 발생하는 안개로 땅안개라고도 부른다. 복사냉각이 심해지는 가을철에 주로 육상에서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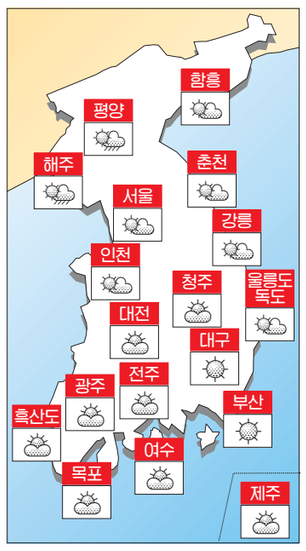
▲이류무(移流霧)=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해면이나 지표면 위를 이동할 때, 아래쪽부터 식으면서 생기는 안개. 습한 공기가 바다에서 육지로 이류되어 올 때 새벽이나 밤시간에는 지표면이 해면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 공기가 냉각되면서 안개가 된다.

찬 바람, 흐린 하늘

11월 2일 (음 9월 23일) ◇전국날씨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6~15℃
목 포	구름 많음	8~14℃
여 수	구름 많음	8~15℃
완 도	구름 조금	8~14℃
구 례	구름 많음	4~15℃
해 남	구름 조금	5~15℃
장 흥	구름 조금	5~15℃
고 흥	구름 많음	5~16℃
순 천	구름 많음	4~15℃
영 광	구름 많음	6~15℃
진 도	구름 많음	5~14℃
전 주	구름 많음	5~14℃
남 원	구름 많음	3~14℃
흑산도	구름 많음	8~1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7:05 20:17 썰물 00:33 12:17
여 수 밀물 01:50 15:22 썰물 08:05 22:07

▲해뜸 06:54 ▲해짐 17:38 ▲달뜸 --:-- ▲달짐 13: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날 씨						
최저/최고	4/16	6/17	8/17	9/18	10/19	8/18

광주·전남 정신병원 장기입원 많다

5년이상 76%…인권보호 대책 필요

광주·전남 정신요양시설 환자 가운데 76.2%가 5년 이상 장기입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4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환자 844명 중 5년 이상이 76.2%(643명), 10년 이상은 57%(481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25개 병원의 평균 기간(5년 이상 60%, 10년 이상 42%)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기간별로는 20~24년이 166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5~9년 132명(15.6%) ▲10~14년 79명(9.4%) ▲15~19년 59명(7%) ▲30년 이상 45명(5.3%) 등이다.

장기 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킨 후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수급자는 84%를 차지했다. 특히 6개월마다 자치단체의 퇴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보호의무자가 없어 자치단체에서도 퇴원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안의원은 "장기입원자가 많은 것은 시설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정신보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자전거 출퇴근 참 좋아요" '에너지의 달'을 맞아 1일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내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직원, 푸른광주21협의회 회원 등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학생운동 판결문 국가기록원 오늘 공개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광주학생운동 판결문을 '이달의 기록(11월)'으로 정하고, 2일부터 국가기록포털(http : //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 11월3일 민족차별에 저항한 광주지역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항일시위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다.

광주학생운동 판결문은 1931년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이 생산한 기록물로 광주지역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장재성, 장석천, 나승규 등 84명에 대한 재판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이다.

기록원은 "판결문에는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력과 활동상황들이 기재돼 있다"면서 "광주학생운동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한 조직적인 항일 시위운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았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전문대 출신 회사원 김모(27)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40분께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두 대와 잇따라 충돌한 후 붙잡혔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운수주유소 앞길에서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영광통 사거리 방향으로 4.3㎞가량 달아났다.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자 김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도주극은 5분도 채 안돼 막을 내렸다. 혈중알콜농도는 0.076% 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음주	700만원
면책 부담금	350만원
변호사비	800만원
수리비	180만원
합계	2,030만원

김씨는 우선 무면허 운전(최대 200만원)과 음주운전(최대 500만원)에 따른 벌금 700만원과 보험회사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을 위한 자기부담금 350만원(무면허·음주운전 300만원·차량 파손에 대한 대물배상 50만원)을 내야한다.

또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는 상황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평균 선임료 300만원에 성공 보수금 500여만원을 합치면 800여만원 가량이 된다. 벌금과 변호사 비용으로만 1천500만원이 깨지는 것이다.

여기에 순찰차 수리비용 100만원과 자신의 차 수리비용 80만원을 합해 총 2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고의로 경찰차를 추돌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1년 연봉을 날리게 됐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이은미기자 emlee@

"한순간 실수로 연봉 날렸다" 후회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1월 5일
	CAD	2개월	11월 1일
	MOS(Master)	2개월	11월 5일
	정보통신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 1,2	5주	매월 초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 부터가 좋습니다 =

7·9급 공무원 합격특강

강좌안내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물리학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전직종처음시작반 현재예약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개강 11월 1일 사전예약접수중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공무원 이론반 2개월 완성 (초급수준 - 매월 3천원) |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완성 (인문경과 개설)

세무직 단독반 2008년도부터 세무직 대폭증원 이론반(2개월 완성) 문제풀이 (1개월 완성) | 기술직 단독반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소방직/ 전산직/ 보건직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12월 15일 시험확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험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 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공인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 · 주부 · 직장인들에 인기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

◇대출 전문가 '부동산대출중개사' = 부동산대출중개사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후 발생되는 자금 부족의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여 부족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높은 대우와 보수 전망 = 각 금융기관은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요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나 보험회사 직원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하여 대출중개를 대행하는 전문가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당신

여기 금융전문가(부동산대출중개사)가 해결합니다.

– 금융전문가가 모자란다(한국경제 2006년 5월 17일자 보도)

IMD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세계 꼴찌"

자본시장 통합법 앞두고 업계 인력 보호 비상

특히 부동산 매매시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대출중개사는 취업과 개업 및 부업 등이 가능하며 어느 직종보다 높은 대우와 보수가 전망되고 있다.

◇자격취득 후 다양한 활동 가능 = 부동산대출중개사를 취득하면 신용금고, 보험회사, 은행, 법무사무소, 공인중개사 및 경매사무소 등 자금융통과 관련된 업무분야에 추업이 가능하고 전문대출 중개 대행사무소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등과 협업도 가능하고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부동산대출중개사의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에 치러지는 시험이 합격비결은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정보 및 자료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관:한국전문자격인증협회
문의처:한국금융상담교육원

자격취득상담/T.1566-0823